



제직임직예배

2월 5일(주일)에는 2012년도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실 새로운 제직들을 임직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임직된 제직들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된 종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며 선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치와 권징조례에 순응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친구로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기로, 또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평을 위해서 일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충성된 자로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 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도와주고, 나아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 김성현, 이정규, 장양술, 한승희 장로 (4명)

: 강정임, 김상기, 김영숙, 김영순, 김준구, 김한나, 박관희, 박미숙, 박선희, 박준재, 박진욱, 심기선, 안명훈, 윤선미, 이문영, 이승연, 이정일, 장성수, 조유미, 지 훈, 태영미, 한문수, 홍옥희 집사 (23명)

: 김현주 집사

: 류승렬, 안창혁, 오준석, 유진선, 이에영, 임윤아, 정근화, 채진병, 최미남, 최정열, 황정제 집사 (11명)



Pieta 의 교훈

이영길 담임 목사

사순절이 되면 생각나는 예술품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Pieta’ 라는 조각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막 숨을 거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 작품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만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작품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Pieta’ 라는 조각품은 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은 ‘St.Peter’ s Pieta’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말고 세 개의 ‘Pieta’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Pieta’ 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St. Peter’ s Pieta’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작품은 사실 네 작품 중 최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90세 가량 살았는데 미

켈란젤로가 24세 때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깊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생애 최고의 작품은 단지 수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때가 바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최고의 작품은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들어집니다.

청년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오늘이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아닐까요?

이번 사순절이 나라는 삶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절기가 아닐까요?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강로

1. Hospitality for Brookline Chamber of Commerce (2월 16일):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Brookline 지역 상공인 협회인 Brookline Chamber of Commerce 의 정기 모임을 hosting하여 이웃을 섬기는 작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적으로 가지는 network 모임을 우리 교회 community center에서 가졌고, 국내선교위원회와 홍보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멋진 음식 제공과 더불어 교회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Welcoming speech가 있었고, 유승오 집사님이 국내선교 사역을 슬라이드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원 집사님의 능숙한 프로같은 모습의 ECC 건물 이야기와 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한 모든 분들의 소개 시간을 가지며, 오랫동안 우리 교회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처음 만나뵈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웃이 되어가는 화기에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Brookline 상공인들이 우

리 교회의 건물과 사역에 관심을 보였고, 베풀어 준 hospitality에 대해 감사해 했습니다.

2. Ruth: The Musical 앵콜 공연:

지난 11월 5일 “뮤지컬 룿” 공연이 ECC 어린이 채플에서 있었습니다. 객석을 다 매우고도 모자라 통로까지 청중들을 가득매운 공연을 마치고 나서 청중들은 물론 스테이지에서 열연하신 배우들, 연주인들 그리고 스태프들 모두가 다 그 열기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2월 25일에 재공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번공연을 또 한번 성공적으로 해내신 우리 배우들 그리고 연주인들 그리고 뒤에서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 선교 위원회

위원장 안 태준 장로



2012년 콜롬비아, 니카라과 선교를 준비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라

rejoice with them weep with them
로마서 12장15절

니카라과에서 선교사로 계시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오던 이동홍 목사님 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마샤야 전도 대회” 라는 이메일을 접할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견뎌내며 5년 연속 대 집회를 소화 해 내신 그야말로 승리의 천국잔치가 펼쳐 졌었습니다. 올해에는 전도 대회를 통하여 첫째날에 약 8,000여명 참석에 158명 결신, 둘째날에 10,000여명 참석에 267명이 결신하는등 모두 425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여러가지 은혜의 일들을 보여 주셨는데 선교지에서 이러한 대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작던 크던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우리의 단기선교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긍지를 갖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콜롬비아 선교는, 니카라과 선교와는 조금 다른 교육 선교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황신재 선교사님의 대학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교회의 학계의 인재

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그곳 대학 강단에 서게 됨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자연스럽게 대학 안으로 연결 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콜롬비아 대학 사정으로 인하여 4월26일 부터 5월 3일까지 이유택 집사님께서 홀로 콜롬비아 대학선교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이 집사님의 전공분야에 관심이 많고 대학사역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세미나까지 부탁을 하였기에 저희 교회에서는 색다른 선교를 시작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여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3번의 단기선교가 있겠습니다.

1. 4/26-5/3 콜롬비아 대학선교
2. 6/30-7/9 콜롬비아 교육선교
3. 7/21-7/28 니카라과아 의료/교육/

특히 올해에는 우리의 youth group member들이 콜롬비아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 있으며 처음 가는 선교인지라 많은 기도와 훈련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 경험을 통하여 굳건한 반석위해 믿음을 세워감으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5/5 - 5/6일에 콜롬비아의 John Hwang 선교사님께서 보스턴에 오십니다. 5/5일 토요일에는 선교팀을 위하여 교육 세미나, 그리고 5/6일에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콜롬비아와 남미의 선교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야할 선교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 입니다.

올해 단기선교 팀을 위한 포어를 로마서의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로 정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선한일을 위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어 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3월24일 토요일 저녁 5시에 니카라과아/콜롬비아 선교모임이 있겠습니다. 선교에 뜻있는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내년 2013년은 본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조명하는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출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터 4차에 걸친 회의와 모임을 통해 전체적인 교회사의 흐름 이해, 자료수집 정리 방법, 편집 방향, 편찬위원회 구성, 출판 디자인 윤곽, 출판 일정과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큰 일중에 하나는 지난 50주년때 모아 놓았던 30여 박스의 방대한 교회 역사자료를 하나하나 분류, 컴퓨터로 스캔, 전산화된 교회 역사 자료를 만드는 것이며, 이 자료를Internet (Cloud Storage)을 통해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역사를 써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있는 자료외에도 관계된 추가자료, 사진, 동영상 등을 계속 모으고, 교회의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과 이에 따른 이야기도 수집하려고 합니다. 여러 교우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진으로 보는 60년사를 편집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60년사 기념 사진전시회를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회역사 편찬에 대해 배우기위해, 이미 훌륭한 교회사를 편찬한 워싱턴한인장로교회의 백순장로님을 모시고 4월 28일과 29일에 교회사 편찬 방법에 대

한 Workshop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목표는 내년 본교회 60주년 기념 추수감사절에 맞춰 아름다운 교회사 출간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6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며, 이에 따른 방대한 자료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 시려 하는 뜻에 조명하는 작업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원하시면 같이 참여하셔서 뜻깊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조사 및 정리, 한글 타자 및 교정, 컴퓨터작업 (Scanning and OCR), 사진 및 그래픽 디자인, 출판디자인을 도와 주실분을 찾고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주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민목회의 새방향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역사 편찬이 될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역사편찬팀

- 마태 김정선 (위원장), 김계숙, 김화옥, 지훈
- 마가 박신영 (부위원장), 박기춘, 신소정, 최정열
- 누가 김문소(팀장), 배한원, 이승연, 최준영
- 요한 안성완 (팀장), 김한나, 남궁원, 이혜승
- 베드로Muti-Media 장양술 (팀장), 한승희
- 고문 백린, 신영각, 조준호, 윤경문

쉐마의 밤



3세대가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

지난 1월 28일 쉐마 기도회로 열렸습니다. 이번 쉐마 기도회를 위해서 청년 1부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성스런 저녁 식사를 청년 1부 학생들이 손수 준비하여 주셨고, 특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어린이 성경 암송을 몇몇 어린 유치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율동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어, 이요한 목사님의 “하나님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고, 가족, 환자분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들과 더불어, 많은 젊은 청년들의 참석으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의 / 평화 / 환경 (정평환) 위원회

안성완 집사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

올 해 초 정평환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떠하겠냐는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저의 생각은,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의’, ‘평화’, ‘환경’을 논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목사님앞에서 그럴 수는 없기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좀 아는 분야에서 일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푸념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정선 장로님, 윤경문 목사님, 그리고 기존의 위원들께서 워낙 바탕을 잘 마련해 놓으셨기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위원회는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24일 우리 교회 교인중 한 분으로부터 email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약 30여명의 탈북자 분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잡혀 다시 북송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 탈북자 분들이 북한에 가면 큰 고초를 당하게 되니,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Online Petition에 서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평환 위원들과 부지런히 메일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정평환에서 2가지 일을 추진 하였습니다..

1. 2월 25일 모든 구역장 분들과 각 부 대표분들께 Email을 드려 온라인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2. 2월 26일 2부 예배후 Fellowship hall에서 탈북자 분들에 관한 사진과 Video를 보여드리고, 원하시는 분은 즉시 그 자리에서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주하게 같이 일은 했으나, 제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무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서명하신 분들의 명단은 UN과 이해 관계가 있는 각 국으로 보내져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지켜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장로님중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소수 민족이고 주류사회에 들어가기 힘든 주변인으로서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보잘것 없는 목소리가 모이고 주님께서 같이하시면,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정평환에서 “시내산 동우회”를 만듭니다. (김정선 장로님께서 idea를 내시고 만드셨음을 밝힙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공동체라 할까요. 가끔 모여서 등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돌보게 하신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시내산 동우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돌보게 하신 환경을 위해 작은 몸부림을 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모여 우리 주변을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을 가꾸어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이 몸부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평환과 시내산 동우회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정평환 위원들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선 장로, 윤경문 목사, 김우진 집사, 김현주 집사, 박성준 집사, 안성완 집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을 사랑하는 등산 공동체 모임에 당신을 초대 합니다.

시내산 동우회

New England지역의... 초보자도...

우리 - 동우회 발기위원: 김용국, 김정선, 김현주, 신소영, 김기선, 안성완, 윤경문

eco-journey
Learning Sharing Advocating

Korean Church of Boston
Justice, Peace & Environment Committee
보스톤현인교회,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올해 저희 남선교회 표어가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남선교회” 인데 감사하게도 1월1일 신년예배와 더불어 설날잔치에 많은 교우들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저희 남선교회가 먼저 감사와 사랑을 받고, 또한 감사와 사랑을 교우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22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과, ‘남은 삶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뒤돌아 서지 않으리’ 하는 찬양으로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다짐하는 시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너희가 나를 택한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15:16)

할렐루야!

저희 남선교회가 창립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대째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함께하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1대와 2대 회장단과 임원들의 헌신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선교회 사업으로는 표어에 걸맞게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작년 사업과 더불어 한걸음 나아가 미래를 짚어지고 갈 청년들(학생들)에게 장학금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선교 및 구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잘되리라 믿으며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섬김과 나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교육관이 완공되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주일 아침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아들 녀석이 떠나고 집사람과 둘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 나가는 신앙 생활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섬김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발 하였다. 유학 생활 초기에 우리를 섬겨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나기도 했다. ‘그래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베풀 때가 된 것’ 이라 생각하였다.

새로이 시작된 소그룹 성경공부는 배광현,정유미 교우와 우리 가정 이렇게 단 두가정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릴 때면 혹시 배광현,정유

미 교우가 오늘 안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곤 했다. 이렇게 시작된 그룹이 이제는 배광현,정유미 교우, 문현석,정하나 교우, 유정수,정은화 교우, 박용진 교우, 윤주한,장숙경 교우, 그리고 우리 가정. 이렇게 총 6가정이 모이게 되었다.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성경공부 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풍구경도 함께 가고, Thanksgiving 때 함께 모여 저녁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설날이라고 모여 떡국을 함께 나누며 웃놀이도 함께 하는 작은 공동체가 된 것이다.

이제 생각해보면 섬김과 나눔을 주겠다고 생각하였던 작은 공동체속에서 나는 더 큰 섬김과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여선교회

외강 김영순 집사

우리 부엌

작년 8월에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구입한 밥솥 4개를 올해 2월 초에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다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바꾼지 채 10일이 되지 않아 전기 밥솥의 밥솥3개가 사라졌습니다. 발견한 장소는 사무실에서 내려가는 층계 뒤였습니다. 카트 위에 3개의 밥솥이 나란히 쌓여 있었고 국물이 말라 비틀어진 국솥, 밥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큰 양푼, 카트 밑에는 사용했던 용기 등이 그대로 쌓여 있

는 채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 후에 부엌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두 부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었습니다. 새벽기도가 시작된 후 어느 월요일 새벽에 두 부엌에 가 보았는데 청년1,2부와 부부청년부가 쓰시는 지하 부엌은 부탁드린 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나 1층 부엌은 실것이 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 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한올타리 지면을 빌려 다시 알려 드리려 합니다.

=떠나시기 전 잠깐!!=

남기신 음식은요?:

2007년 에스더 여선교회를 섬긴 이후 부엌에서 꽤 일을 해 보았는데 남기신 음식을 다시 드시는 분들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중에 늘 교회 문이 열려 있어 사실 남긴 음식을 다시 드시는 것은 좀 위험한 듯도 합니다. 아까와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려 주십시오. (지난 부엌 청소 때에 냉장고를 치우시던 분들이 nausea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밥솥, 보온밥솥, 국솥이 맞춰져 제 부엌, 제 자리에요?:

전기밥솥, 국솥의 몸체와 뚜껑에 해당 부엌과 주로 많이 쓰시는 부서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쓰신 후 짝을 맞춰주시고 가능하면 제 층 부엌에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 혹 다른 곳에서 쓰셨다면 해당부엌으로 옮겨 주십시오. 건조대에 남아 있는 그릇 등은요?: 부엌의 모든 서랍과 캐비닛에 그 곳에 들어가는 물품내역을 이름표로 붙여 놓았습니다. 설것이 후 Paper Towel로 건조 시키신 후 한 5분 정도 투자 하셔서 각각의 제자리에 넣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설것이입니다.

스토브나 카운터, 카트에 떨어진 음식이나 얼룩은요?:

지난 교회 대청소까지 교회 부엌을 사용하는 생명체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생명체는 화장실은 사람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대청소 이후 그 생명체가 그 분비물을 잘 보지 못하였으나 조금의 음식이나 얼룩이 남아 있다면... 특히 음식조리 후 스토브 위나 음식 운반 후 카트위를 잘 닦아 주십시오.

Pantry로 갈 큰 그릇 등은요?:

높은 술과 아롬드리 양푼과 체는 모두 목사님 사무실 옆의 Pantry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쪽 부엌의 중간지점이라 필요할 때 찾으러 다니는 거리를 줄이고 좁은 부엌에 큰 그릇이 늘 차지하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 Pantry에서 르호봇 연못이 가장 잘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월요일 아침 건조대에 있는 그릇들을 치우다가 설것이 하시고 놓아 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번들번들한 그릇과 집게를 다시 닦았습니

다. 사도바울께서는 중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시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엡 6:5-8)” 하셨는데 부엌사용에 관한 한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먹고 먹을 때는 사역을 포기할 수도 없고, 위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기도하시면 내시는 헌금으로 살림을 하며 절약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엌에서 하는 “주께 하듯하는” 훈련으로 우리 모두 상급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권사회

회장 조 순래 권사

2012 년도 첫번 정기 권사회 모임이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 반에 친교실에서 가졌으며, 새 회장단과 (부회장 정능화 권사, 서기및 회계 김여영 권사)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12년도 살림을 계획하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에도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께 위로와 기도의 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안부도 여쭙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더 온교회와 성도님들,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인 제

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예년에 권사회에서 해오던 국내/해외선교를 협력하는일, 교역자 및 신학생들을 위한 만찬 대접, 교회 경/조사를 돌아 보는 일등, 씩씩한 권사님들께서 올 한해를 잘 엮어 갈 수 있기를 의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강혜정 집사

Connector, 연결고리



3월 첫 주일 2부예배는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일년에 한번 여선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분명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긴장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마음이 흐트러질수 있으리란 염려가 괜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역할을 맡은 각 임원들이 예배를 늘 진행해온 것처럼 물이 흐르듯 예배의 흐름을 따를 수 있어 율목사님의 설교나 기도, 조유미 집사님의 지도로 다듬어진 노래로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또 임원들은 하나님 안에 연결고리가 되어 한 몸임을 느꼈습니다.

지난 1월의 마지막 주일, 포근한 겨울날, 에스더 임원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ECC건물의 새 페인트 냄새가 코끝에 느껴지는 한 회의실에서 낮익

은 많은 얼굴들과 젊고 생기있는 새로운 얼굴들이 간간이 보이는 가운데 지난날의 학창시절 학생회를 상기시키며 다소곳이 모였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에스더의 임원들은 대부분이 역할을 바꿔가며 몇 년을 함께 봉사드린다는 것입니다. 회장임기가 끝났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 회장이시던 박애리 집사님은 판매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맡으셨고 이성숙 집사님은 일이 제일 많은 봉사부를 자원하셨고, 노윤경 집사님은 고문으로 몸과 마음으로 도우십니다. 에스더에 무슨 꿀단지나 숨겨져 있나요? 왜 에스더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에스더 여선교회는 45세 미만의 여성교우님들이 주인입니다. 저희 여선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안의 살림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살림살이와 제반행사에 깊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교회에서 “Connector,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자합니다. 구역분들과는 너무 잘 알고 지내지만 교회안의 다른 교우님들과는 아직 낯설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또는 비슷한 나이또래 엄마들과는 아시지만 언니나 동생뻘되신 다른 교우님들과는 아직 서먹하신가요? 교회에서 작은 일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에스더에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웃음과 진한 시간을 보내시길 초대합니다. 매주일 부엌에서는 갓 내린 향기로운 커피와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들이 환하게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회장: 강혜정 집사, 부회장: 이미정 집사

그루터기 청년 2부

서기 김미진 교수

2012년 표어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청년들” (에베소서 5장 10절)

2012년 봄 학기가 시작하면서 1. 복음이란 무엇인가(김세운 교수) 2. 돈, 섹스, 권력 (Richard J. Foster), 3.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James Brian Smith)이 3교재를 가지고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5명의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각 조 별로 모여 몇 개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들을 나누며 말씀 공부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음악적 달란트를 가진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찬양 팀을 주축으로 은혜가 넘치는 찬양 예배를 드리며, 허신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각 조 별로 모여 식사하며 지체들끼리 좀 더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작년 10월 2일 정기 총회를 통해 2011-12년도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에 문지용 형제, 부회장에 이수영 자매, 그리고 총무에 신일경 자매가 임명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4일에는 제 2회 “Psalm Night”을 통해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서로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추수감사절과 12월 23일에는 청년 2부 크리스마스 Lock-in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2년 1월 1일 전교인 신년 행사에서 청년 2부가 윗놀이에서 준우승을 했으며, 2월 25일 “Ruth the Musical” 공연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3월부터 매월 2째주 금요일 연합 예배를 통해 청년 1부, 2부, 부부 청년부가 공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4월 13일~15일 청년2부 수련회가 The Salvation Army Wonderland Conference Center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저희 청년 2부를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이 말씀을 붙들고 청년 2부 모두는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Sunflower 유년초등 주일학교

진정원, 박선의 집사

새해를 맞이하여 보스톤 한인교회 주일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5학년 선생님께서,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는 부장집사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일 학교를 섬기어 주신 이은주 집사님께서 교육부 부위원장직만을 맡게 되셨고, 새로이 진정원, 박선희 두 분의 집사님들이 부장 집사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은주 집사님께서 전도사님이 공석인 시기를 비롯하여 여러모로 혼신의 힘으로 주일 학교를 이끌어 오셨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으로 수고해 주신 이은주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5학년을 담당 하였던 박성준 선생님의 자리에 이강민 선생님, 2학년을 담당 하였던 이재익 선생님의 자리에 정은아 선생님 그리고 Nursery 1 반의 새로운 보조 선생님께서 김민경 선생님을 보내 주신 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년 주일 학교에서 가장 어린 Toddler 반을 위하여 오랫동안 열심히 섬기어 주신 박강희 사모님의 자리를 대신 하였던 오상남 선생님께서 정들자마자 한국으로 2월 중순에 귀국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섭섭함도 잠시, 김미숙 그리고 김미미 선생님께서 주일 학교 Toddler 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주일 학교를 위하여 봉사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Toddler | 김미미, 김미숙 |
| Nursery 1 | 배한원, 손유현, 김민경 |
| Nursery 2 | 강모나, 김혜원 |
| Kindergarten | 진정원, 김선영 |
| 1학년 | 문지용 |

2학년 정은아
 3학년 강민형
 4학년 임보라
 5학년 이강민
 Praise Team 김연희, 장인지, 강경진, 심세희,
 신보경

지난 2월 한달 동안에 1학년 부터 5 학년 아이들은 시편 23장을 공부하고 암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점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아이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볼 수 있어서 은혜로운 2월 이었습니다. 1월 그리고 2월 동안에 주님께서 보스톤 유년주일 학교에 보내 주신 김준성, 김준연, 주예준, 주찬협, 장원준, 장호준, 문지민, 이건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공동체인 주일 학교 안에서 영적으로 쑥

쑥 자라 늘 주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옛 교우의 서신

박태민 교우

눈이 많은 보스톤의 겨울이라지만 2011겨울은 기록을 세울 정도로 눈이 많이 온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 유난스럽게 비가 많고 구름낀 날이 많은 겨울을 보내면서 작년 이맘때 눈속을 뚫고 주일이면 Brookline 있는 보스톤 한인 교회에 갔던 기억이 새롭고 그립습니다. 지난 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스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3개월된 손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저의 자녀들도 풀타임으로 돌보지 못했던 저에게는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보살필 수 있었고 몇개월의 시간을 손녀와 함께 보낼수 있도록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둘째는 보스톤 한인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사귄입니다.

주일아침이면 전차와 시내 버스를 갈아 타면서 교회에 가는 길이 흥겨웠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날은 도회지에서 이용하는 대중 교통들이 편리하고 부담이 없는 것도 좋았지만 저의 심령은 목마른 사슴이 웅달샘을 찾아가듯 주일에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설레임과 기쁨으로 충만 했었습니다.

어느날 주보에 성경공부가 있다는 소식을 읽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반원들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시간.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매 주일마다 권 집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반 반원과 함께 서로 신앙을 고백을 하며, 깨

우친 하나님의 말씀을 허심 탄회하게 서로 나누면서 가진 교제의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좋았습니다. 보스톤의 긴 겨울도 추운줄 모르고 몇 달을 훌쩍 보냈습니다. 매 주 주일 아침마다 안내석 테이블에서 항상 반가운 미소로 환영을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영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귀한 영적 식량에도 감사드립니다. 예배후에 상록회 회원분들로부터 대접받은 사랑의 커피와 떡도 참 맛있었습니다. 저도 보스톤 한인교회에 다녀온 후로 저의 교회를 방문 하시는 분들께 더욱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됨을 다시금 기억 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대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보스톤 한인교회, 하나님께 찬찬 받는 “빌라델 피아교회” 와 같은 교회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인디애나에서

해킹과 바이러스를 부를 수도 있는 7가지의 흔한 실수

1. 보안 소프트웨어가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안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100%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보안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보안이 더이상 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계정에 접속하는 것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가 아무리 안전해보여도 그 링크를 클릭하여 금융 계좌등의 계좌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기성 이메일들이 금융기관등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하여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획득하여ID를 도용하거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비밀번호, 계좌 번호 또는 기타 정보를 물어보아보거나 갱신해야 한다는 이메일이라면 사기성 이메일이 거의 대부분이다.

3. 모든 온라인 계정에 단일 암호를 사용하는 것

모든 인터넷 계정에 단일 암호를 사용한다면 만약 비밀번호가 알게 모르게 유출되었을 경우 은행계좌 같은 모든 다른 중요한 계정도 위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받은후 컴퓨터가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Spyware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해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가 공짜 프로그램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고자 하는 경우 믿을만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다.

5. 맥 컴퓨터는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맥 컴퓨터라고 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윈도우가 더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다. 맥 컴퓨터에 기본으로 첨가된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의 경우 다른 브라우저보다 덜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다. 맥 컴퓨터도 윈도우 컴퓨터 사용시와 같이 보안이 필요하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것이 사파리 브라우저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다.

6.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등의 광고성 팝업 광고를 클릭하는 것

- 광고를 실수로 열어봤다해도, 팝업 광고를 클릭하는 순간 스파이웨어 사이트로 이동되거나, 자동으로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될 수도 있다. 팝업 광고는 클릭하지말고 그냥 닫는것이 좋고, 팝업 광고를 제대로 닫으려면, 창의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모서리에있는 X를 클릭한다. 모든 팝업을 방지하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기를 사용하거나 구글 툴바 등을 사용하면 된다.

7. 매장에서 쇼핑하듯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

온라인쇼핑을 할 때에는 주소, 크레딧 카드넘버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온라인상에서 그 정보를 해커들에게 도난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시에는 별도의 신용 카드나 크레딧 회사에서 제공하는 1회용 가상 카드넘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은행 데빗카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앞에 "HTTPS" 를 표시하는 사이트나TRUSTe라는 심볼이 있는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Source: Consumer Report 번역, 내용 편집 및 추가: 김현주

제네시스를 위한 특별 기도 부탁

보낸 사람: 양한갑 (필리핀 안센-나병 환자 선교사)



똑똑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자유한 것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깡마른 그의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미동도 없는 제네시스
그는 지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아니 그는 늘 그렇게 아팠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를 향해 “쫓쫓쫓...” 했을 뿐이었습
니다.

그를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지....
제네시스 머리 위에 걸려 있는 포도당 주사 줄이
하늘까지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Rev. Joshua Hankap Yang
아시아 나사랑 선교회
Asia Leprosy Mission
www.LoveALM.com
Korea Mobile: 010-9931-1254
Philippines Mobile (63) 920-299-6232

양한갑 선교사님의 기도부탁입니다

장애인 예배에 나오고 있는
장애아 제네시스(10살)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10년입니다.
제네시스는
단 한 번도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말을 해 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어서 아무거나 치먹었던 내가 부끄러웠고
말을 잘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었던 내가 부끄러웠고
걸을 수 있어서 아무데나 휘젓고 다녔던 내가 부끄러
웠습니다.
배부른 것이 자랑이 아니고

주일 성인 성경공부 격려 말씀

김문소 강로

주님 말씀 갈급하여 열심히들 모여서들
일상에서 우려나온 신앙경험 나눠왔다
성인 성경 공부반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인내하고 수련해 온 지난 해를 돌아보니

성경공부 결과 위에 더 큰 친목 다져져서
경사스런 교회생활 활기찬 믿음생활

공부하여 배운 실력 혼자 갖기 아까워서
부지런히 나눠주니 교회 좋고 이웃 좋네

격식차려 준비해 온 잔치상은 아니지만
여유있는 마음으로 나눠먹고 담소하니
말씀과 떡 두루두루 살이 되고 은혜 되어
씀씀이가 어울렸네 주일 성인 성경공부.

알림

✦ 마리아 여선교회는 1월 1일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김영순 집사를 인준하였고, 2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신 임원진 인준 및 2012년도 예산 및 행사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고문: 이성혜 사모, 김춘미 집사, 고경아 집사
 회장: 김영순 집사, 부회장: 윤미자 집사,
 총무 및 서기: 정명숙 집사,
 회계: 홍도화 집사, 선교부장: 김동숙 집사

✦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가 주최하는 연례세계기도일 예배를 3월 9일 본교회 ECC Chapel에서, 여선교회 주관으로 가졌습니다.

주제: “너희가 정의를 구하라”
 말씀인도: 허신영 목사 “풍성한 삶”,
 예배문 작곡곡: 말레이시아
 (매년 3월 첫 금요일은 세계 기독교여성들이 세계기도위원회가 정한 기도문으로 기도모임을 갖는 세계기도일입니다. 2012년은 세계기도일 125주년이 됩니다.)

✦ 청년 1부 봄 수련회가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뉴 햄프셔에서 2월 3일 -5일까지 가졌고, 2월 19일에는 청년1부 “캠퍼스 선교를 위한 음식 바자”를 가졌습니다.

✦ 청년부를 위한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실 분들은 게시판에 sign-up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있으나 손길이 부족해서 봉사를 하지 못 할 분들을 위해서 donation(\$100)을 받습니다.

✦ Ransom 중고등부: 2월 18일 토요일(18) 오후 7시에 중고등부의 Talent show인 “Coffee House”가 ECC 채플에서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Confirmation반이 3월 4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 9학년-12학년).

✦ 집사회: 2012년도 집사회 새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김우진 집사 총무: 정광근 집사
 서기: 정재원 집사 회계: 김동규 집사
 2월 26일: 집사회 의료부 주최 건강강좌 (강사: 윤원재 집사, 제목: “소화기계 암”)

✦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평일: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8시)

✦ 세례 교육반 소식: 3월 18일부터 세례 교육반이 실시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사순절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이웃에게 전달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가져 가십시오.

✦ 교인주소록 이메일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바뀌신 분은 kcbweb@hotmail.com으로 이메일주소로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17(토) 제직수련회(오후 4시)가 있습니다.
 주제: “교회: 하나님의 가정”
 강사: 장위현 목사님 (벨몬트 연합감리교회).



교회일정

1. **재의 수요일:** 지난 2월 22일 (수)에 재의 수요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말씀이 있은후 재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찌어다’

2. **성금요일:** 4월 6일(금)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일입니다. 이날 예배는 1부 찬양대에서 주관하는 음악예배로 드립니다.

3. **부활절:** 4월 8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예술위원회

12월 25일: 성례식

유아세례:

류재범 (류승열/임윤아), 정지오 (정성원/변수연),
박영인 (박요섭/박진경), 조인우 (조훈성/이순아),
박종후 (박철규/이수연), 차혜준 (차민호/신민영),
이주현 (이민용/강혜원), 최유준 (최학수/최안나),
이하연 (이관화/정혜정),

유아세례:

류재범 (류승열/임윤아), 정지오 (정성원/변수연),
박영인 (박요섭/박진경), 조인우 (조훈성/이순아),
박종후 (박철규/이수연), 차혜준 (차민호/신민영),
이주현 (이민용/강혜원), 최유준 (최학수/최안나),
이하연 (이관화/정혜정),

교우동정

출산:

최형태/구윤지 교우택에서 2월 중순에
득녀 (정인, Leila) 하셨습니다.
김태훈/육혜진 교우택에서 3월 초에
득녀 (지애/Grace) 하셨습니다.
정하균/곽서영 집사택에서 2월 10일
득녀 (세인, Joelle) 하셨습니다.

소천:

이재혁 집사님의 부친(故 이진용)께서 12월 초에 소
천 받으셨습니다
이문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2월 말에 소천받으셨습니
다.

새교우 환영반.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에 오신 새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거의 매달 새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영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3번의 교육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첫째 주는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 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회 교단에 대해 배웁니다.

12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박아림, 박상철/이혜원, 윤원재/허규연, 이재현/송은정, 이향로, 정민수 교우입니다.

박아림 교우는 숙명여대 미술사 교수이며 현재 visiting scholar로 체류 중입니다. 처음 본 교회 출

석 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롬 12:1--- 미국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라는 설교 말씀 듣고 본교회 출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원재/허규연 교우는 슬하에 딸 윤정이 있으며 서울대 소화기 내과 교수인 윤원재 교우님이 MGH에 교환 교수로 오시며 보스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허규연 교우님은 삼성병원 내분비 내과 근무중 오셨습니다.

이향로 교우는 아이들(원준, 호준) 교육을 위해 보스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본 교회 출석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박상철/이혜원 교우: 박상철 교우는 Tufts 대학 치과 레지던트이시고, 이혜원교우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 선생님이로 봉사하셨고, 다시 오신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이재현/송은정 교우: 이재현 교우는 Bio-engineering Post Doc 으로 체류 중입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도덕적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에 감동받아 은혜받으며

신앙생활 하고 있으시며 송은정 교수께서 연애 기간 중 남편을 전도하셨다 합니다.

정민수교우는 Dana Faber 암센터에 근무하시려 먼저 오셨고, 부인이 이번 3월에 보스톤에 오시면, 새교우 환영반을 다시 같이 하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2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나해서/김지희, 김태우/김자영, 김도경/강효숙, 김태훈/육혜진, 박요섭/박진경 가정입니다.

나해서/김지희 교우: 나해서 교우는 한국에서 의사사로 근무해 오던 중 현재 보스톤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인이신 김지희 교우는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현재 버클리에서 재즈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모태신앙으로 꾸준한 신앙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우/김자영 교우는 슬하에 아들 (Jaykin, 약인) 이 있습니다. 김태우 교우는 웨스트보로 (Westborough, MA) 출신으로 현재 약사로 근무중이시고, 침례교 목사님으로 시목하시는 아버지 슬하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자영 교우는 보스톤에서 유학(회계학) 중 룸메이트의 권유로 시작한 교회생활에서 남편인 김태우 교우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도경/강효숙 교우: 김도경 교우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효숙 교우는 올해(2012년) 3월 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척의 권유로 처음 접한 신앙생활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훈/육혜진 교우는 2011년 6월 결혼 후, 동년 8월부터 보스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5일 득녀(지애, Grace) 하셨습니다. 김태훈 교우는 외중조 부께서 청진 지역에서 선교자로 활동하신 가족력에 바탕 모태신앙이며 현재 BU에서 엔지니어링 석사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육혜진 교우는 남편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요섭/박진경 교우는 슬하에 7개월 된 딸 (영인, Chloe)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박요섭 교우는 현재 Tufts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박진경 교우는 현재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요섭 교우는 골프 실력이 대단하셔서, 오시자마자 지난번 우리 교회 골프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셔서, 참석한 골프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녁 만찬을 갖는데 지난 12월 새교우 환영만찬은 안태준/문유경 장로님 댁에서 있었으며, 2월 새교우 환영만찬은 한승희/김경애 장로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장로님들 가정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월 새교우 환영반은 11일, 18일,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환영반 교육을 통해 교회를 알고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교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관한 문의는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님과 윤미자, 김현주 집사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KCB 갤러리를 준비하면서

박신영 장로

요즘 초저녁 서쪽하늘에는 금성-목성-달이 매일 조금씩 자리를 바꿔가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바쁜 일상에 묻혀 있던 저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흐의 별파와 화가들의 꿈’ 이란 전시회 (한국, 예술의 전당)에 있었던 반 고흐의 두 작품 ‘별이 빛나는 밤’ ,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 이 생각났습니다. 한 작품은 반 고흐가 말년에 생레미의 정신병원에서 창 밖에 보이는 마을 풍경을 그린 그림이고, 다른 작품은 가까이 있는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 아를에서 룬강의 다리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으로, 고흐 자신은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교에 대해 철저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런 밤이면 나는 별을 그리러 밖으로 나간다. 눈 앞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임의대로 색상을 활용해 나를 강하게 표현한다.’ 별을 보며 자신을 그린 예술을 보면서, 또 별들이 만들어 내는 밤 하늘의 예술을 보며, 우리 모두는 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은 만국 공통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 섞여있는 미국 땅에서, 예술과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하고 이웃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어찌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홍보 위원회에서는 ECC community hall을 전문적인 전시실로 만들고 미술품이나 서예, 사진 등 예술 작품의 전시를 통해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문화생활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문화선교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KCB 갤러리 (가칭)라고 이름하고, 홍보위원회 산하에 예술전시팀을 꾸려 지난해 했던 Pop-up gallery처럼, 외부의 예술행사를 유치하거나, 우리가 주관하는 작품전을 갤러리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전, 대상 작가도 전문적인 예술가들뿐 아니라, 교회와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의 꿈나무에게도 작품전시 기회 제공 할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 (신광성 집사, 김희정 집사, 이경자 집사, 한문수 집사, 심기선 집사, 배광현/정유미 부부, 박신영 장로) 이 우선 준비팀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적인 예술인들과 전시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예술 전시팀을 구성하여 갤러리 시설을 갖추고, Security에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고, 갤러리 운영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KCB 갤러리를 통해 문화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사역에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 그리고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성탄음악예배



유년주일학교 학예회



Ash Wednesday



청년부 연합 찬양의밤